
한영희 선생의 신석기시대 연구사*

안 승 모**

목 차

- I. 머리말
 - II.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
-토기 편년을 중심으로-」(1978)
 - III. 1980년대 신석기 연구
 - IV. 1990년대 신석기 연구
 - V. 맺음말
-

* 이 글은 필자의 「인물로 본 신석기시대 연구사-김원용, 김정학, 임효재, 정징원, 한영희를 중심으로-」(『한국신석기시대 고고학사』, 진인진, 2017)에서 한영희 선생 관련 부분을 발췌, 부분 보완한 것이다.

**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9년 서거하실 때까지 신석기 연구의 활성화를 주도하였던 고 한영희 선생의 신석기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한영희 선생을 대표하는 논문인 『한반도 중·서부 지방의 신석기문화』(1978)에서는 즐문토기를 시문부위별과 문양요소 조합별로 형식을 구분하고 이 형식들이 각 유적과 층위에서 석기, 골각기 등 다른 유물들과 어떻게 결합하여 유물복합체를 형성하는가를 검토하였다. 북한의 공산문화 4기 편년을 반영하면서도 독자적인 토기 형식 분류를 더하여 만든 한영희 선생의 편년은 즐문토기의 시베리아 기원설에 입각하여 전면시문 횡주어골문토기가 구연부와 동체부에 서로 다른 문양을 시문한 토기보다 선행한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견해를 완전히 뒤엎은 획기적 주장으로 이후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편년의 기틀이 된다. 이후의 글들에서도 상기 논문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었고 한편으로는 생활상, 생업과 사회를 포함한 신석기문화의 개론적 성격의 글도 발표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일본, 중국, 연해주 등 주변 지역과의 교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시대별 학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신석기연구회를 설립하고 회장을 역임하면서 신석기 연구의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Ⅰ 주제어 Ⅰ

신석기시대, 신석기문화, 즐문토기, 시베리아 기원설, 고고학사

I. 머리말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 선사문화 연구가 일본학자들의 전유물이었고 신석기시대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 도유호를 중심으로 북한학자들이 고고학적 연구를 주도하면서 1950년대까지 궁산, 금탄리, 지탐리, 농포, 호곡동, 서포항 유적 등을 발굴하여 신석기시대(이하 신석기)의 독자적 존재를 입증하였다. 남한에서는 1957년 국립박물관의 『한국서해도서』에서 덕적도, 소야도, 승봉도, 대흑산도의 들문토기 패충이 처음 보고되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야 김원용 교수(서울대), 김정학 교수(고려대)를 중심으로 신석기 연구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에서 신석기 유적 지표조사와 발굴을 진행하면서 고고학자를 양성하고 신석기 연구도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도 고고학만을 전공하는 연구자는 많지 않았고 신석기 전공자도 없었다. 김원용 교수는 고고학과 미술사학, 김정학 교수는 고고학과 고대사를 같이 전공하였기에 최초의 신석기 전공자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신석기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한 임효재 교수(서울대)라고 할 수 있다. 1978년에서야 한영희 선생이 한국에서 최초로 신석기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취득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영희 선생의 신석기 관련 연구업적을 연대순으로 요약하여 기술한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 인용되는 글에 대한 논평은 가능한 자제한다.

II.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토기 편년을 중심으로-」(1978)

고 한영희 선생(1948-1999년)은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서 고고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1975년 3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에서 근무를 하였고 국립진주박물관 관장, 국립전주박물관 관장과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을 역임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동삼동 패충(1969-1971년), 시도 패충(1970년), 암사동 유적(1971-1975년)을 잇달아 발굴하면서 신석기 유적 발굴의 중심에 섰다. 한영희 선생은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한 1975년도에 암사동 유적 4차 발굴에 직접 참여하면서 신석기 전공자의 길

로 들어섰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수집한 암사동 유물들을 실견하고 암사동 4차 발굴 때 조사한 1·2·4·5·10호 주거지와 출토유물을 직접 정리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의 기초적 자료로 이용하였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불온간행물실에 비치되어 있던 북한의 고고학 관련 발굴보고서 등 각종 도서도 그의 석사학위논문 작성, 특히 편년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인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토기 편년을 중심으로-」(1978)는 한영희 선생의 대표적 연구 업적으로 이후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과 연구의 근간이 되었기에 자세히 소개한다. 논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I. 머리말
- II. 한반도 즐문토기의 지역적 풍토상
- III. 중·서부지방 즐문토기관계 유적 (1)중부지방, (2)서부지방, (3)서북지방
- IV. 중·서부지방 유적·유물의 검토
 - (1)주거지, (2)분묘, (3)토기, (4)석기, (5)골기, (6)토제품, (7)장식품
- V. 토기문양을 중심으로 한 편년 및 문화유입에 대한 고찰
- VI. 총론

〈머리말〉에서 한반도 즐문토기 문화를 토기를 중심으로 압록강군, 동북지방군, 중서부지방군, 남부지방군의 4개 지역군으로 구분하였다. 『한국고고학개설』(김원용 1973)의 6개 지역 분류에서 대동강, 한강, 서남해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환저 즐문토기로 대표되는 암사동식 장란형토기의 분포지를 조사하여 타 지역 즐문토기 문화와의 교류를 밝히고 중·서부 즐문토기 문화의 특색과 유입경로 등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중서부가 아니라 중·서부임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청천강유역의 서북부, 대동강유역의 서부, 한강유역의 중부가 포함된다.

〈한반도 즐문토기의 지역적 풍토상〉에서는 즐문토기의 지역적 특색을 간략히 언급한 후 중·서부지방 토기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중·서부지방 즐문토기관계 유적〉에서는 해방 후 북한에서 새로이 발굴한 즐문토기 유적을 소개하였다. 대동강유역과 황해도의 서부지방에는 지탑리, 금탄리, 궁산, 용당포, 반월동, 청천강유역의 서북지방에는 세죽리, 당산 유적이 해당한다. 서북부에서 압록강과 청천강을 분리한 것은 전자는 평저토기문화권이고 후자는 세죽리, 당산 유적에서 첨저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중·서부지방 유적·유물의 검토〉에서 가장 주목되는 항목이 토기이다. 태토, 기형, 색조, 제작방법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특히 문양 분류가 이 글의 핵심 주제인 편년의 기초가 된다. 이 글에서는 즐문토기를 문양의 배열과 시문부위를 기준으로 아래의 네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구연부, 동부, 저부별로 문양을 개별단위로 세분하였다.

I 식: 암사동식 즐문토기. 구연부, 동체, 저부의 세 부위에 서로 다른 문양 시문

 a1~6 구연부 문양, b1~11 동부 문양, c1~5 저부 문양

II 식: 토기 전면을 하나의 시문권으로 보고 시문

 IIa - 띠대문, 무지개문, 거치문, 횡주어골문 등을 전면에 교대로 시문

 IIb - 전면에 횡주어골문을 정연하게(IIb₁) 또는 다치로 조잡하게(IIb₂) 시문

III 식: 즐문계 무문토기

IV 식: 구연부에만 덧띠무늬 한 줄이나 간단한 조문 1-2열을 불규칙하게 시문

유적별로 태토, 기형, 구연부·동부·저부의 개별 문양을 표로 집성하였는데 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종·형식·속성의 유무를 이용한 연속순서배열법을 상대편년에 암묵적으로 이용하였다. 석기에서도 석촉, 석창, 찢개살, 석부, 연석·연석봉을 형식분류하여 다른 석기들과 함께 유적별로 존재 유무를 표시하는 표를 작성하였다.

〈토기 문양을 중심으로 한 편년 및 문화유입에 대한 고찰〉에서는 토기 문양 비교를 중심으로 반출된 석기 등과 비교하여 상대편년을 논한 다음 이 유적들의 상호관련과 타 문화권과의 연관성 및 중·서부지방 즐문토기 문화의 유입경로를 고찰하였다. 상대편년은 주로 지탐리, 궁산, 금탄리 유적의 층서관계를 이용하였다. I 식토기 유적은 문화 차이가 뚜렷한 지탐리 유적을 기준으로 지탐리 1호 주거지 → 1호 주거지 퇴적층(궁산 주거지 외) → 지탐리 II지구(궁산 주거지, 암사동, 시도I지구)로 상대편년하였다. I 식은 초기부터 유행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각형토기의 무문토기로 소멸되기까지 잔존한다고 보았다. 금탄리 I·II 문화층에서는 IIa → IIb·III·IV식의 선후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상 분류된 문양과 반출 석기를 비교하고 지탐리, 금탄리 유적의 출토상황을 고려하여 중·서부 신석기시대는 I 식토기로 대표되는 I기, IIa식토기의 II기, IIb·III·IV식토기의 III기(금탄리 II문화층)로 편년하였다. I기는 다시 돌보습, 돌낫 등 농기구가 출토되고 곡선문이 성행하는 지탐리 II지구 문화를 경계로 Ia, Ib기로 세분하였다. 즉 지탐리 1호 주거지는 Ia

기에, 지탑리 Ⅱ지구, 궁산, 암사동은 I b-Ⅲ기, 금탄리 I 문화층은 Ⅱ기, 금탄리 Ⅱ문화층은 Ⅲ기로 편년하였다. 다만 총론의 최종 표에서는 암사동과 궁산 주거지를 I b기로 편년하였다.

가장 이른 시기의 지탑리 1호 주거지는 토기 문양 시문방법, 석기 제작기술 등에서 상당히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문화 이전에 더 이른 신석기문화가 있으리라 추측하였다. 중서부 최초의 신석기문화(제1식문화)의 기원은 압록강을 통한 서북방면이 아니라 서해안을 따라 대동강유역에 전파되어 성립한 지탑리문화에서 시작되며, 지탑리문화인이 내륙으로 남하하여 암사리문화를 형성하고, 암사리종족의 일부가 한강가를 따라 내려가 서해도서해에 정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금탄리 I 식토기와 횡주어골문토기의 Ⅱ식 역시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으며 금탄리 Ⅱ문화층은 동북, 서북지방과 연관을 보여 내륙을 통한 루트를 상정하였다.

북한의 발굴성과를 반영하면서 남한 쪽 자료도 집성하여 독자적 견해를 피력한 한영희 선생의 편년은 즐문토기의 시베리아 기원설에 입각하여 전면시문 횡주어골문토기(Ⅱb식)가 구연부와 동부에 서로 다른 문양을 시문한 토기(I 식)보다 선행한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견해(김원용 1973; 김정학 1968 등)를 완전히 뒤엎은 것으로 이후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편년의 기틀이 된다. 그는 즐문토기의 모든 문양요소를 고려하면서 시문부위별과 문양요소 조합별로 형식을 구분하고 이 형식들이 각 유적과 각 층위에서 석기, 골각기 등 다른 유물들과 어떻게 결합하여 유물복합체를 형성하는가를 검토하였다. 토기만이 아니라 유물·유구복합체(assemblage)도 비교하여 편년을 도출한 점이 한영희 선생 편년의 특징이었다.

Ⅲ. 1980년대 신석기 연구

위 논문 이후 한영희 선생의 신석기 연구는 한동안 침체기를 맞이한다. 1980년대의 신석기 관련 논문은 1983년에 발표된 아래의 두 편에 불과하다.

한국고고학 40년을 회고한 「회고-한국고고학40년: 신석기시대」(한영희 1983a)에서는 신석기 연구사를 일인 독점기, 개척기(1945-1965년), 확립기(1966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확립기는 김원용, 김정학, 임효재 등 남한 연구자들이 신석기 연구를 시작한 단계이나 이 글을 작성한 시기까지도 방법론상의 큰 진전은 보여주고 있지 못해

다음 단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는 신석기 연구가 대부분 토기(특히 기형과 문양)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중부와 남부에 국한되어 있는 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연구가 미흡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자연과학과의 본격적 제휴, 고고학 용어의 재정립,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과 개발을 연구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토기유형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 토기의 특성 및 주변지역 토기와 비교한 「지역적 비교」(한영희 1983b)에서는 신석기시대 토기를 용기문토기와 빗살무늬토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용기문토기는 태선용기문과 세선용기문으로 분류하고 분포, 특징과 규슈 용기문토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빗살무늬토기는 청천강과 오산리를 경계로 평저권(동북, 서북), 환저권(중·서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크게 나누고 전자는 동북, 서북지방, 후자는 중·서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중·서부지방 빗살무늬토기는 암사동식, 금탄리 I·II식, 시도식으로 분류하였다. 남부지방은 샘플의 동삼동패총 편년을 수용하여 부산기, 두도기(수가리II기), 영도기(수가리III기)로 구분하였다. 암사동식의 영향을 받은 두도기는 규슈와 교류가 많았으나 영도기는 외부 접촉이 정체된 시기이다. 서포항 I-V기의 동북지방은 중국 동북지방, 연해주, 아무르 유역과, 서북지방은 요동 등 중국 동북지방과 접촉하였다. 일본의 『季刊考古學』 38집에 실린 「韓半島新石器時代の地域性」(한영희 1992)은 상기 논문의 일본어 수정판이다.

한영희 선생은 1983년에 국립박물관 지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서해도서지방의 덕적도, 소야도, 굴업도를 답사하여 신석기시대 패총을 여러 곳 발견하였다(한영희·안승모 1983). 지표조사보고서는 실제 한영희 선생이 직접 작성하였고 필자에게는 한자 용어를 고고학개정용어집(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4)에 맞추어 한글로 바꾸는 작업 정도만 지시하였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에서는 춘천 중도 유적조사가 마무리되면 시도패총에 이어 서해도서 신석기패총 발굴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영희 선생이 1984년 국립진주박물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에서 한병삼 당시 학예연구실장도 서해도를 새로 조사해도 시도패총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만류하고 대신 송국리 청동기시대 유적 추가발굴을 권하였는지라 패총 발굴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80년대에는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에 관한 논문도 여러 편 발표하였다. 특히 「각형토기고」(한영희 1983c)와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생활」(한영희 1983d)은 기존 신석기 논문과 마찬가지로 북한 고고학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IV. 1990년대 신석기 연구

한영희 선생은 국립진주박물관(1984-1989년)과 국립전주박물관(1990-1993년)의 개관과 초대관장의 바쁜 업무를 맡으면서 신석기 연구에 집중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국립진주박물관 관장 재직 시에 임학중과 함께 연대도, 옥지도 패총을 발굴하면서 신석기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국립진주박물관 1989, 1992). 「연대도 조개더미 단애부 II」(한영희·임학중 1991)에서는 연대도 패총이 동삼동의 목도기에서 부산기 초반 즉 전기 중반부터 전기 말 또는 중기 극초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패총의 분포와 성격, 발굴 및 연구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신석기시대 패총」(한영희 1993)에서는 패총 조사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①지표조사를 전개하여 정확한 분포도 작성, ②학술적 목적의식을 갖고 발굴을 하여야 하고, 인간행위 중의 잔존물로서의 패총이라는 개념 속에서 유적의 전면 발굴 필요, ③층위 파악의 중요성, ④동식물유존체의 최대한 확보, ⑤패총 규모와 체적을 산정하고 토기 연대폭과 비교하여 거주 인구의 규모와 형성 기간을 파악하고 어패류의 성장선을 분석하여 경제적 패턴 확인, ⑥다양한 출토 유물과 동식물유존체의 통계치를 정확히 기술하여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착오 없게 할 것, ⑦식생활연구의 필요성.

한편 『북한의 문화유산』(정재훈·이용조 외 1990)에서는 신석기시대편을 집필하였다. 북한에서 발굴조사된 신석기시대의 중요 유적들을 지역 단위의 유형별(평안북도·요동지방의 청동말래유형, 평안남도·황해도의 궁산유형, 압록강 중·상류와 송화강 이남의 토성리유형, 함경북도의 서포항유형)로 묶어서 소개하였다. 또한 북한 학자들이 갖고 있는 신석기시대 문화와 편년에 대한 관점이 우리(남한) 학자들의 견해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살펴보면서 북한 측의 자민족중심주의적인 경직된 연구방향을 비판하였다.

「한국 고고학의 반세기-신석기시대-」(한영희 1995)에서는 신석기 유적 지명표와 유적(주거지, 패총, 산포지, 동굴) 분포도를 작성하고, 유적의 조사현황과 보고서 발간현황을 집성하면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10년 단위로 통계를 내었다. 상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연구과정과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어서 신석기 편년과 연대관 그리고 문화의 전파 흐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길사의 한국사 시리즈로 편찬된 「신석기시대의 사회와 문화」(한영희 1994)는

한영희 선생의 신석기 연구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시리즈의 신석기시대 편은 내용이 방대하고 주제별로 저자가 나누어져 신석기문화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인식을 찾기 어려운 반면, 이 글은 단일 저자가 집필하고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용어를 사용한 탓에 대학 학부생들을 위한 교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의 성립〉, 〈유적분포와 문화영역 구분〉, 〈유적〉, 〈유물〉, 〈경제생활과 문화〉, 〈연대와 사회〉, 〈신석기문화의 종말〉의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마지막 세 장의 내용만 간추린다.

〈경제생활과 문화〉에서는 수렵, 어로, 농경, 의생활과 장신구, 예술과 신앙을 다루었다. 농경의 경우 출토된 유물과 검출된 곡물로 볼 때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팽이와 보습을 사용한 농업을 원시적이거나 실시하였다고 보았다. 출토된 농경도구의 검토에서 지역별 자연환경에 따라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은 농경의 비중이 제법 컸고 남부지역은 농경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추정하였다. 예술과 신앙에서는 신석기시대를 주술적 신앙사회로 판단하고, 토우 중에 여성이 많은 점에서 여성신앙 숭배의 여권사회, 모계주의사회로 추정하였다.

〈연대〉에서는 중서부지방 토기를 I-IV식의 토기 시문 부위의 차이로 네 형식으로 나누었다. 삼부위 시문의 I식은 단순 문양의 Ia와 타래문 등 복잡한 시문의 Ib, 저부 문양이 생략된 II식은 금탄리 I식의 IIa와 어골문 시문의 IIb, 횡주어골문 전면 시문의 III식, 무늬가 전혀 시문되지 않거나 한 줄의 덧무늬, 손톱무늬 등 무늬가 퇴화된 IV식으로 구분하였다. IV식을 제외하면 형식분류의 세부적 기준은 그의 1978년도 분류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층서학과 형식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Ia식은 전기, Ib와 IIa식은 중기, IIb식과 III·IV식은 상한을 후기전반과 후반으로 편년하였다. 중서부 외에 한반도 다른 지역의 신석기 편년도 시도하였다. 동북지방은 서포항 편년을 이용하여 I·II기층 토기류는 전기, III기는 중기, IV·V기는 후기로 편년하였다. 남부지방은 용기문토기 → 구연부에만 시문된 빗살무늬토기(전기) → 전면무늬토기(중기) → 구연부무늬로 퇴화 → 한 줄의 빗금무늬, 겹아가리토기(후기)로의 변화로 파악하였다. 절대연대는 방사선탄소연대 자료를 이용하여 서기전 6,000-1,000년으로 추정하였다.

〈사회〉에서는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원시미개민족 생활상과 가족제도에 유추하여 우리 신석기시대 주민들의 행위가 공동체적인 집단행동인 공동생산, 공동소유, 공동분배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생산 활동

에서 여성의 역할이 큰 경제생활을 영위해 모계씨족사회에 바탕을 둔 사회조직체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신석기문화의 종말〉에서는 중국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지역에서 본격적인 농경생활에 바탕을 두고 무문토기와 청동기를 사용하는 집단이 거주하였는데 이들과의 접촉 속에 한반도 신석기문화도 이들의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었다고 보았다.

「中·西部地方의 櫛目文土器」(한영희 1994b)와 「신석기시대 중·서부지방 토기문화의 재인식」(한영희 1996)은 1978년도 석사학위논문에서 추후 발굴 성과를 추가하여 토기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일부 수정한 글로 앞의 「신석기시대의 사회와 문화」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中·西部地方의 櫛目文土器」에서는 문양의 시문방법과 내용 차이로 중·서부지방 빗살무늬토기를 암사동식, 시도식(서해안식), 금탄리 I·II 식으로 구분하였다. 암사동식은 3부위 시문의 I 식(전형적 Ia, 종속문 첨가 Ib), 저부 생략의 II 식, 구연부 한정 III 식으로 분류하고, Ia 식은 전기, Ib와 II 식은 중기, III 식은 후기로 편년하였다. Ia 식은 정립단계의 문양이라 전기 중반으로 편년하였다. 시도식은 암사동식토기가 서해지방으로 진출한 후에 생성된 지역 토기로 파악하였다.

「신석기시대 중·서부지방 토기문화의 재인식」에서는 먼저 〈중·서부지방 토기의 분포와 양식설정〉을 고찰하였다. 윗글에 이어 전형적 3부위 문양을 암사동 I 식(또는 궁산식), 종속문 첨가를 암사동 II 식, 단사선문계의 구연부 문양 잔존을 암사동 III 식으로 지칭하였다. 단사선문은 중·서부의 특징적 문양으로 타 지방과의 영역구분은 물론 기원과 확산과정 추적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궁산식은 대동·재령강유역에서 중기후반에 금탄리 I 식, 후기에 금탄리 II 식으로, 서해도서에서는 후기에 시도식으로 바뀌었으나 한강유역은 가장 보수적이라 구연부 단사선문이 후기까지 잔존하였다고 보았다. 오산리 상층 첨저줄문토기에 종속구연문이 없는 것은 전파시기가 암사동 I 식토기에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동해안과 남해안 줄문토기의 종속구연문 부재에서 암사동 I 식토기가 동쪽과 남쪽에 동시 전파되었다고 추론하였다.

이어서 〈시기구분에 따른 문화의 특성과 흐름〉에서는 초창기, 전기, 중기, 후기의 한반도 전체 편년안을 제시하였다. ①초창기(10,000-5,000 BCE)는 용기문토기 문화, 오산리평저토기문화로 대표된다. 서기전 1만년은 일본과 아무르 유역 용기문토기의 연대, 임불리와 고산리의 세석기와 용기문토기 공반, 오산리 B지구의 방사선탄소연대에서 추론된 것이다. 한편 유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서부지방에

도 신석기 주민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암사동Ⅰ식토기는 정제된 문양이 전면에 시문된 완성된 단계의 토기이기 때문에 이보다 이른 구연부 문양만을 갖춘 초기 형식의 토기가 현 해수면보다 깊은 곳에서, 또는 암사동문화의 유입 루트인 도서지방이나 해안가 유적에서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서부지방에 북방으로부터 주민이 유입되며, 서해를 통해 들어온 암사동식토기의 주민이 서해도서와 한강에 정착한다. ②전기는 전반기에 암사동Ⅰ식토기가 출현하고 이어서 Ⅱ식과 공존한다. 전반기 말에 한강유역 주민이 각 지역으로 활발하게 이동한다. 후반기에 암사동Ⅱ식토기가 유행하고 태토에 석면과 활석의 혼입이 두드러진다. ③중기는 전반에 암사동식토기의 저부 문양이 생략되고 동부 문양도 간략화 현상이 발생한다. 전반기 말에 다치구 어골문계의 시도식토기가 등장하여 후반기에 정착하고 일부는 내륙으로 진출하여 암사동식과 공존하기도 한다. 기존에 후기로 편년하였던 횡주어골문토기를 중기까지 소급한 것이 특징이다. 대동강유역에서는 후반에 금탄리Ⅰ식토기가 정착한다. ④후기는 지역성이 강화되는 시기로 대동강은 금탄리Ⅱ식, 한강유역은 암사동Ⅲ식과 단사선문계 전통이 지속된다. 한강 내륙은 내평식, 서해안과 서남도서는 시도식, 암사동Ⅲ식, 율리식, 북촌리식, 금강유역은 금강식토기가 특징이다.

글의 마지막 장인 〈기원과 종말 그리고 한민족의 형성〉에서 한반도 각지의 신석기 주민은 시베리아를 포함하여 한반도 북쪽의 여러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문화적, 혈연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주민집단이 서로 다른 길을 따라 내려온 것으로 보았다. 암사동식토기문화는 바이칼호 및 그 주변지역과 가장 유사하고, 암사동Ⅰ식토기의 주민이 북쪽의 어느 지역에서 내려올 때는 첨저의 삼부위문양 또는 단사선문계 구연부 문양 토기를 가졌으나 중·서부에 정착한 후 지역 환경에 따라 암사동Ⅰ식토기의 독자적 양식으로 발전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오산리 용기문토기는 아무르강 중류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 용기문토기인에 의해 형성된 환동해문화권 속의 한 지역 문화로 파악하였다. 용기문토기는 주민 이동, 오산리식토기는 문화접변으로 형성되었고 암사동Ⅰ식토기가 동쪽으로 확산되어 두 지역 주민이 활발한 접촉을 가짐으로써 유전적으로도 동질성을 갖는 혼혈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였다.

위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 기술하였던 신석기시대 토기 및 주민의 기원과 형성 문제는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한영희 1996)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신석기 주민을 한민족의 직접적 조상으로 보고 거주 지역을 한반도 및 그 주변지역까지 포함시켜 그 주민 전체를 하나로 묶어 논의하면서 계통이 다른 인종이

길을 달리하여 한반도로 유입한 것으로 보았다. “토기의 기형이 비슷하고 또 겉면의 시문수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의 무늬가 들어 있는 토기가 발견되는 점을 이유로 양 지역 문화의 유사성을 논하는 데 긍정적인 자료로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게 된다. 오히려 시베리아 지역과 한반도의 토기문화가 한 뿌리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면서 이를 부정한다면 기형도 경제도 다른 한반도 첨저토기와 평저토기 문화도 이질적인 문화를 갖는 서로 다른 인종으로 구분해야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반도에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신석기문화 전체를 문화의 동질성에 바탕을 둔 동일 종족의 소산으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뚜렷한 지방 차를 보여 주는 여러 갈래의 종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신석기 주민을 토기 지역성에 기반하여 ‘신암리형문화’, ‘서포항형문화’, ‘암사동형문화’, ‘동삼동형문화’를 담당하였던 종족으로 구분하면서도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문화를 동일 종족의 것으로 본다면 한민족의 뿌리는 시베리아의 어디인가에서 구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방기원설을 보강하기 위해 Gm유전자, HLA유전자, DNA분석, ALDH₂분석, 고인골 형태변이, 식생대 등 인접학문의 연구 성과도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석기시대의 문화와 그 담당자는 구석기시대 후기, 중석기시대를 거쳐 한반도에 존재했던 인종과 주변지역으로부터 이동해 온 수렵·어로·채집·원시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인종들과의 접촉에서 만들어졌으며, 정주생활에 기반한 후자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민을 동화 내지 흡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사 2: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1997)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영역구분과 지역성」, 「사회」, 「동아시아 신석기문화의 이동」의 네 장을 한영희 선생이 작성하였다.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영역구분과 지역성」에서는 기존의 동북, 서북, 중·서부, 남해안에 중부 동해안을 분리하여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오산리 등 영동지역의 신석기유적 발굴성과를 감안한 것이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신석기문화를 비교할 때 지나친 상사·상이성 분석을 지양하고 유물 외적으로 각 지역의 인문지리적 환경과 그것에 따른 식생대와 경제생활의 양태도 고려할 것을 충고하였다.

「동아시아 신석기문화의 이동」에서는 한반도와 일본(규슈지역) 신석기문화의 교류를 다루었다. 송눈평원과 아무르중류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첨부(태선, 세선)덧무늬토기와 미(微)덧무늬토기가 시기를 달리하여 아무르하류 → 송화강 → 우수리강

→ 연해주를 경유하여 해안가를 따라 동해안으로, 그리고 해류를 따라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 한일 두 지역 토기문화는 독자적인 지역성을 바탕으로 생성, 발전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북방어로에 뿌리를 두었고 공동어로구역인 대한해협을 공유하였기에 공통된 유물과 교역 유물이 존재한다. 기원전 5천년기 후반 아카호야 화산재로 서북규슈의 내륙부와 먼 섬 지역을 제외한 규슈 전역의 인간과 동식물이 전멸되었는데 영선동식과 빗살무늬토기 전래 시기가 화산폭발 시기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후 식생이 회복되는 시기에 한반도 남해안으로부터 대거 주민이 유입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사회」에서는 사회구성, 교역, 의식과 신앙, 예술,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을 다루었다. 신석기시대는 혈연 기반의 씨족집단으로서의 모계사회 원시공동체이며, 사회의 기본 단위는 성인 부부와 2-3명 정도의 미성년자녀가 거주하는 움집 4-5기로 이루어진 취락이다. 경제는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하면서 부족한 물품은 물물교환을 하였고, 토테미즘, 애니미즘, 무격신앙(샤머니즘)에 기반한 의식과 신앙을 보유했다고 추론하였다.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인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한영희 1998)에서는 군산 가도 패총의 단사선문계 문양양식과 기형이 암사동계 토기보다는 궁산·지탑리계의 서북지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신석기 주민들의 바닷길을 통한 이동과 교류가 생각보다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주민 교류는 시기에 따라 단절적인 바, 전기 말부터 중기까지는 남부 주민들의 이동과 교류가 남해안 서쪽지역보다는 일본 규슈 쪽과 보다 밀접하였고 후기에 복원되었다고 보았다.

「신석기시대」(한영희 2001)는 참고문헌에서 1999년도 논문까지 인용되었으니 그 해 11월에 별세한 한영희 선생이 남긴 마지막 글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신석기문화의 최근 연구 성과와 경향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와 관련한 현안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유적보존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하고 피치 못할 각종 조사에서의 시료나 표본조사에 충실할 필요성, 둘째, 인재의 양성으로 특히 자연과학과 관련한 제연구를 위해서 동물유존체나 고인류학, 고식물학, 지질학 등을 전공하는 학자를 양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영희 선생은 1993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관으로 바뀐 와중에서도 그의 숙원사업인 암사동유적 발굴보고서 간행을 추진하였다. 발굴보고서 간행은 이전에도 수차례 시도한 바 있었으나 출토 유

물이 방대하여 토기 복원과 실측조차도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그런 와중에 국립박물관이 발굴한 주거지를 유적 복원이란 명분하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다시 노출시켜 보고서를 발간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영희 선생이 직접 참여한 1975년도의 4차조사 보고서가 드디어 1994년과 1995년에 잇달아 발간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4·1995). 정성희와 공동으로 집필하였는데 발굴경과, 유구, 유물에 대한 보고만 있을 뿐 고찰은 누락되었다. 나머지 보고서는 한영희 선생 별세 이후에 간행되었다. 1971년의 1차조사 보고서는 2006년, 2차조사 보고서는 2007년, 3차조사 보고서는 2008년에 완성되었다. 아마도 한영희 선생이 생존하셨다면 마지막 보고서에 충실한 고찰이 덧붙여지지 않았을까 싶다. 한편 1999년에는 1998년도에 실시된 원시생활전시관 건립에 따른 암사동 구제발굴조사 보고서를 정성희와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나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타계하셨다.

V. 맺음말

고 한영희 선생은 신석기 전공 1세대로서 1970년대 후반부터 1999년 서거하실 때까지 출공 신석기 연구의 충실화와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한영희 선생의 대표적 신석기 논문은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1978)이다. 이 논문에서는 즐문토기를 시문부위별과 문양요소 조합별로 형식을 구분하고 이 형식들이 각 유적과 층위에서 석기, 골각기 등 다른 유물들과 어떻게 결합하여 유물복합체를 형성하는가를 검토하였다. 북한의 궁산문화 4기 편년을 반영하면서도 독자적인 토기 형식 분류를 더하여 만든 한영희 선생의 편년은 즐문토기의 시베리아 기원설에 입각하여 전면시문 횡주어골문토기가 구연부와 동체부에 서로 다른 문양을 시문한 토기보다 선행한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견해를 완전히 뒤엎은 획기적 주장으로 이후 중·서부지방 신석기 편년의 기틀이 된다. 이후의 글들에서도 상기 논문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었고 한편으로는 생활상, 생업과 사회를 포함한 신석기문화의 개론적 성격의 글도 발표하였다. 한영희 선생은 한반도 신석기 편년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고 한반도와 일본, 중국, 연해주 등 주변 지역과의 교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한영희 선생은 임효재 교수, 정정원 교수와 함께 신석기 전공 1세대로서 일제강점기 일본인학자들의 즐문토기 연구에서 탈피한 독자적인 한국 신석기 편년과 연구

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한 한국신석기연구회를 설립하여 후학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석기 전공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5월 세 분이 주축이 되어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회’(회장 정징원)를 결성하였다. 신석기 연구자간의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통해 침체해있는 신석기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이었다. 1994년 6월부터 학회 명칭이 ‘한국신석기연구회’(회장 임효재)로 개칭되면서 본격적으로 학술회의도 개최하고 일본 九州縄文研究會와 공동으로 한일신석기 공동연구 심포지엄이 양국에서 격년제로 번갈아 열리게 되었다. 1996년부터는 한영희 선생이 새 회장으로 선출되어 1999년 11월 타계하실 때까지 학회를 이끌어나갔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1994·1995, 『암사동』.
- _____, 1999, 『암사동』 II.
- 국립진주박물관, 1989, 『육지도』.
- _____, 1992, 『연대도』 I.
- 김원용, 1973,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 김정학, 1968, 「한국기하학문토기문화의 연구」, 『백산학보』 4, 백산학회.
- 정재훈·이용조 외, 1990 『북한의 문화유산』 I, 고려원.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4,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 한영희, 1978,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 『한국고고학보』 5, 한국고고학연구회.
- _____, 1983a, 「회고-한국고고학40년: 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연보』 10, 서울대학교박물관.
- _____, 1983b, 「지역적 비교」, 『한국사론』 12,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83c, 「각형토기교」, 『한국고고학보』 14·15, 한국고고학연구회.
- _____, 1983d,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생활」, 『한국사론』 13,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2, 「韓半島新石器時代の地域性」, 『季刊考古學』 38, 雄山閣.
- _____, 1993, 「신석기시대 패총」, 『한국고고학보』 29, 한국고고학회.
- _____, 1994a, 「신석기시대의 사회와 문화」, 『한국사 1: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 한길사.
- _____, 1994b, 「中·西部地方의 櫛目文土器」, 『제2회 조선연구학태평양국제회의발표문』, 동북아세아고고학연구회.
- _____, 1995, 「한국 고고학의 반세기-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의 반세기』, 한국고고학회.
- _____, 1996a, 「신석기시대 중·서부지방 토기문화의 재인식」, 『한국의 농경문화』 5, 경기대박물관.
- _____, 1996b,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上)』, 소화.
- _____, 1997a, 「신석기시대의 유적」, 『한국사』 2: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7b, 「사회」,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7c,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영역구분과 지역성」,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7d, 「동아시아 신석기문화의 이동」,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8,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 『호남고고학보』 6, 호남고고학회.
- _____, 2001, 「신석기시대」, 『한국의 제4기 환경』,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2, 『한국신석기문화 연구』, 소화.
- 한영희·안승모, 1983, 「서해 도서지방의 지표조사(1)」, 『중도』 IV, 국립중앙박물관.
- 한영희·임학중, 1991, 「연대도 조개더미 단애부 II」, 『한국고고학보』 26, 한국고고학회.

【Abstract】

History of Han Younghee's Research on the Neolithic Period

Ahn Sung Mo*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Neolithic Period undertaken by Han Younghee, who played a key role in invigorating Neolithic research from the 1970s until his passing in 1999. In *The Neolithic Culture of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1978), his representative body of work, Han Younghee established a typology of comb-pattern pottery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decorative elements, as well as where they were rendered on the surface of the vessel, and examined how each of the different types were associated with stone and bone artifacts in each cultural layer of known Neolithic sites. While acknowledging the North Korean 4 phase framework of the Gungsan Culture, he also formulated an independent framework for the classification of pottery types. This new framework, which provided the foundations for the later understanding of the Neolithic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played a crucial role in overturning the then dominant view that pottery with vessel surfaces covered entirely with horizontal herringbone patterns were used earlier than pottery with mouth and body sections featuring different types of pottery (this traditional view had been based upon the idea that comb-pattern pottery had originated from Siberia). Based upon the basic framework of this seminal work, which continued to be maintained, Han Younghee's later research featured overviews of the lifestyle, subsistence, and society of the Neolithic Period. Exchange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Japan, China, and Russia's Primorye region was another important topic of research for Han Younghee. He also played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the 'Society for the Research of the Korean Neolithic', the first period specific research society to have been founded in Korean archaeology. Acting as chairman, his efforts contributed greatly to the invigoration of Neolithic research.

Key words : Neolithic period, Neolithic culture, Comb-pattern pottery, Siberian origins theory,
History of archaeology

* Wongsang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